

한국 국민 10명 중 3명 “아침 안 먹어”



▲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이 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배식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국민 10명 중 3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통계플러스 봄호'에서 이러한 내용의 분석을 발표했다.

2019년 기준 한국 국민의 아침 결식률은 28.1%였다. 10명 중 3명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다. 반면 점심 결식 비율은 7.7%, 저녁 결식 비율은 5.4%로 아침보다 훨씬 적었다. 하루 세끼 중 평균 결식 횟수는 0.41회였다. 연령별로 보면 18~39세에서 0.67회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미취학 연령대인 5세 이하는 0.13회, 60세 이상은 0.18회로 낮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1인 1일당 쌀 섭취량은 137.2g이었다. 이는 2013년의 172.9g과 비교해 20.6% 줄어든 것이다.

하루 세끼 중 쌀을 섭취하는 끼니 수는 평균 1.86회였다. 60세 이상은 2.27회, 5세 이하는 2.26회로 높았지만, 18~39세는 겨우 1.43회였다.

한편 지난 1월1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한국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34%였다. 특히 19~29세의 경우 절반이 넘는 59.2%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9세 41.9%, 12~18세 37.7%도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택 증여 시기 늦어진다... 70대 1위

부모가 보유한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집을 물려받는 나이도 급상승했다.

지난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전날 법원 등기정보공장을 통해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인 5745명 중 37.6%인 2107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인 건물을 말한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70대 증여인 비중은 2020년만 해도 23.1%로 60대(26.7%)나 50대(24.7%)보다 낮았다. 이들 비중은 2021년 25.2%로 50대(24.6%)를 제치고 60대(25.5%)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난 데 이



▲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어 2022년에는 1위(28.6%)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36.1%를 기록하며 1년 만에 7.5% 포인트 급증했다. 60대와 50대는 각각 22.6%, 18.9%로 줄었다.

집을 물려받는 사람(수증인)의 연령대도 높아졌다. 2020년 40대(22.6%) 30대(21.6%)에 이어 세 번째(20.1%)였던 50대 수증인 비중은 지난해 27.7%로 1위에 올랐다. 이어 40대 22.0%, 60대 19.3%, 30대 16.1%, 70대 이상 8.0%, 20대(19~29세) 6.8% 등의 순이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화 속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인 노년층)로서 여성 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노인 가구도 '싱글족'이 대세

한국의 전국 가구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일 만큼 혼자 사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가구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2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가구 수는 2238만가구로 전년보다 36만가구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보다 222만 가구 늘어난 것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전년보다 0.1명, 2017년보다 0.3명 감소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4.5%에 달했다. 2017



▲ 서울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홀로 사는 노인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년 28.6%, 2019년 30.2%, 2021년 33.4%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인 가구 비중도 28.8%로 증가했다. 반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줄어들고 있다.

2022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는 1년 전보다 31만6000가구가 증가한 533만2000가구가 늘었다. 노인가구 비중은 23.8%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노인 가구 셋 중 하나 이상 이 독거노인 가구다. 노인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은 37.0%로 가장 많았고, 부부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1세대 가구가 36.0%로 비슷했다.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는 22.7%였고 3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는 3.1%에 불과했다.

Kyung Sook Yu, D.D.S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